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2023.12



나눔과행복소식 (20호)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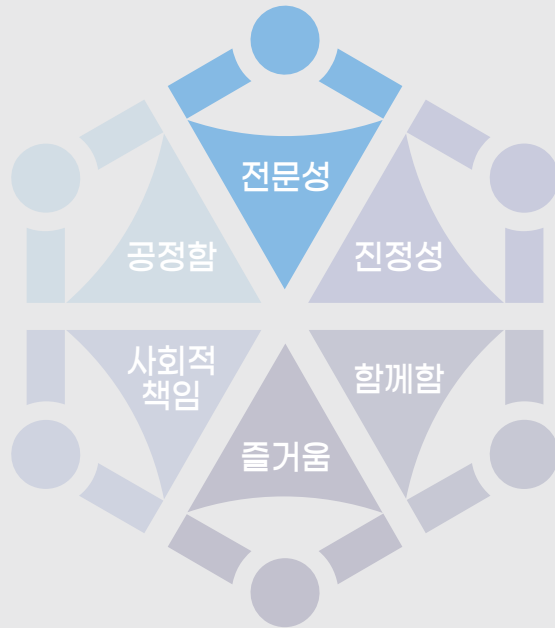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더엔케이의원 정양수 원장 '식단, 건강 그리고 꿈' 특강 (12.08)



12/8일 조금 늦은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강리가 있었습니다.

저서 [먹는 단식 FMD]을 집필하시고, 생로병사, 끼니반란 등 각종 매체에 출연하시면서 식단에 대한 강의로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계신 '정양수' 원장님께서 백선미 병원장님의 인연으로 이곳에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더엔케이의원' 대표원장님을 역임하시고,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양수' 원장님은 현재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로 좋은 강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날 강의는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언제 먹을 것인가?' '유해화학물질' '나에게 맞는 음식은?' '식이법' 에 대해 상세하게 강의해주셨습니다.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 제1차 영상심화컨퍼런스 (12.18)

지난 8월에 중순에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재활의료 김연희 원장님이 언급한 것처럼 뇌질환 후 빈번히 동반되는 언어장애와 인지장애는 그 기능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와 인지는 뇌질환 회복기에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개입하여,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후유장애를 줄이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발대식을 통해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적인 언어인지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분들의 사회복귀를 늘이며, 치매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점에서, 그제 12/18(월) 오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영상심화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참여자(입원환자)를 선정하여 언어와 인지분야에서 평가를 거친 후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현행수준을 관찰하고 평가한 후 치료방법을 모색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센터에서 같이 토의하고 싶은 부분을 정리하여 함께 이야기하였고, 1시간가량의 첫 영상심화컨퍼런스는 이렇게 자체만으로도 많은 장점들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더 보완해야 할 것도 있고, 수정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는 어느 병원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병원만의 특화된 센터이기에, 대상(입원환자)을 두고 의료진과 언어, 그리고 인지가 서로 협업하고, 회의와 컨퍼런스를 통해 함께 나아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처음 가진 '영상심화컨퍼런스'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재활의료, 통합의료, 경영지원 2024 사업계획 중간 피드백 (12.21~22)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실습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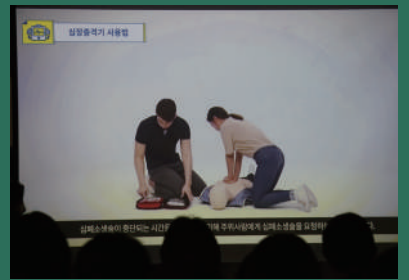


12/13(수) 오후에는 4층 치료실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순서는 5분정도의 영상시청과 함께, 소화기내과 고인영 진료부장님의 첨언, 그리고 궁금하신 직원 분들의 Q&A, 마지막으로 실제 실습을 해보고 이 과정을 코칭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고인영 진료부장님께서 우리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가슴압박 말고도 구강 대 구강 호흡까지 하도록 권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실제 처음 환자가 발생하면 전문 의료인들도 환자 상태를 평가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심정지가 오고나면 꺾꺾 숨이 넘어가는 듯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게 쉽지 않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애매하다면 일단 심장마사지를 바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휠체어스쿨 (12.12 / 12.26)

휠리

박OO의 4명의 참여자와 휠리 유지하기 및 이동하기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휠리가 몸에 익은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와 아직은 연습이 더 필요한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휠리를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휠리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포츠 (12.05 / 12.19)

모두가 즐거워하는 뉴스포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단체 활동이 재개되면서 즐겁게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9일에는 2020년 대회이후 3년만에 미니 대회로 진행되었고, 전 대회 우승자분(퇴원참여자)들과 이번 대회 우승자간의 이벤트 경기를 통해 통합 우승자를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퇴원참여자들과 한 공간에서 같은 공감을 가지며 서로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가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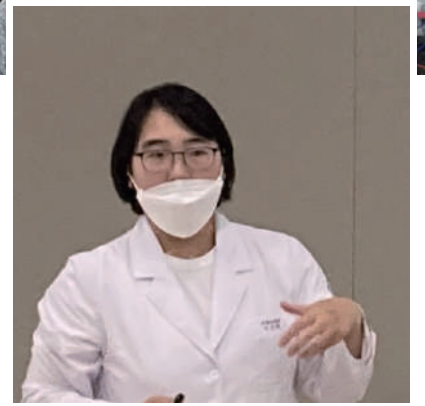
이렇게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잘 마무리 되었고, 계속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대회를 이어갈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알기 쉬운 지역사회자원 안내 사회사업팀 이지혜 부팀장 (12.02)

참여자의 입원부터 퇴원 준비, 퇴원 이후까지 일상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상담, 프로그램, 국가보장제도와 지역사회자원연계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참여자와 강사 간 상호 질문과 답으로 활발히 이야기 나누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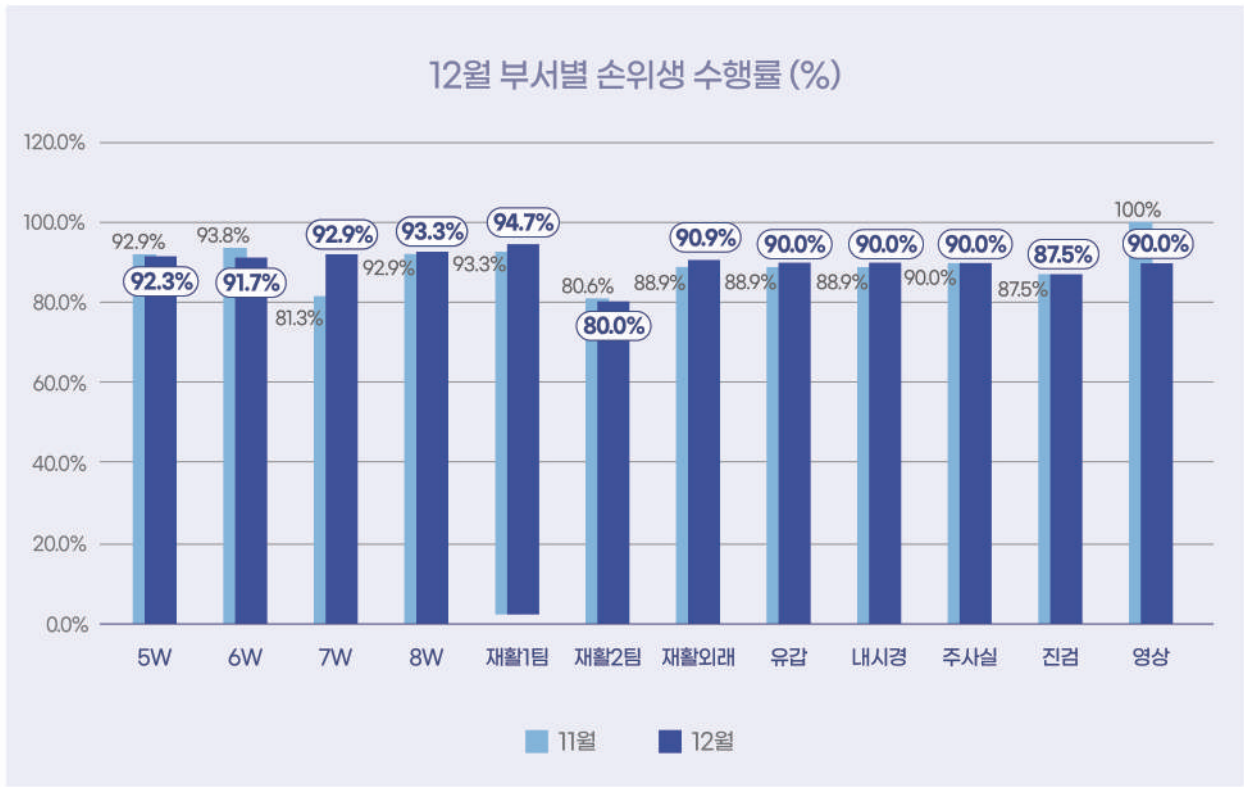


회복기 재활의 이해 간호팀 김경희 부팀장 (12.16)

회복기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복기 치료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다양한 지식과 회복기 재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심도있게 교육해주셨으며,

곧 회복기 재활 치료가 끝나 자택으로 퇴원을 고민하는 참여자와 강사 간 상호질문을 통해 퇴원 시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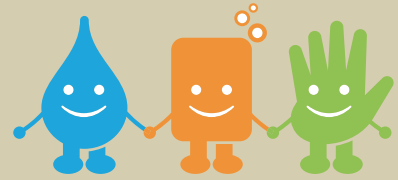


이달의 손위생 우수부서 ‘재활치료1팀’ (12.20)

12월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재활치료1팀이 94.7%로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손위생을 했는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의 기본기 올바른 손위생



올바른 손씻기 방법 6단계

‘바-등-깍-가-엄-툼’

기억해주세요♥



1 손바닥



2 손등



3 손깍지



4 손가락



5 엄지손가락



6 손툼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빛.나.리 : 빛나는 나의 크리스마스 만들기 연말특집 프로그램

‘12월 연말 소망 더하기’ (12.20~22)



#1 모두의 소원을 모아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망 트리’

행복미니도서관에는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소망 트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자 및 보호자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행복미니도서관을 찾아주셨으며 밤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야광엽서에 2024년 새해를 맞아 꼭 이루고 싶은 나만의 소원을 소망 트리에 달며 즐거운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가셨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함께 한다는 것, 다른 참여자의 소망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소원을 모아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망 트리 만들기에 동행해주신 여러분의 소망, 꼭 이루어지길 겁니다. 작성해 주신 소중한 소망은 1월 초, 5층 행복미니도서관에서 전시 예정으로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2 연말 특선영화 ‘○○○○○’

본원에서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고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특선영화 ‘○○○○○’가 9층 회의실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많은 참여자 및 보호자가 관심을 보이고 참석해주셨으며 문화생활을 함께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모여 웃음으로써 생활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분전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 프로그램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12.20)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 보호자가 함께 모여 리본과 종을 트리에 직접 매달아 나만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하였고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만들기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크리스마스트리를 자신에게, 소중한 가족에게, 감사한 치료사 선생님께 선물할 수 있어 감사해하셨으며 마음에 드는 크리스마스 엽서에 소망을 적고 공유하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설레는 기분을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홈파티 간식 만들기' (12.21)



다양한 과자와 과일을 활용한 세 가지 종류의 크리스마스 홈파티 간식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간식은 산타 딸기바나나로 나무 꼬챙이에 딸기, 바나나, 마시멜로우를 끼워 산타 얼굴과 산타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간식은 오예스 루돌프로 오예스와 프레첼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마스코트인 루돌프를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젤리, 약과, 과자를 소분하여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포장지에 간식을 정성껏 포장하는 등 다양한 간식 재료를 손끝으로 느끼는 활동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간식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셨습니다.



참여자과 보호자는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해 마음이 지쳤었는데 이런 재미있는 하루를 선물 받아 감사함을 느끼고 크리스마스 홈파티 간식 만들기로 즐거운 따뜻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가셨습니다.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건강증진팀 김수정 파트장 (12.01)



우리는 가족입니다. 12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5W) 이슬기 간호사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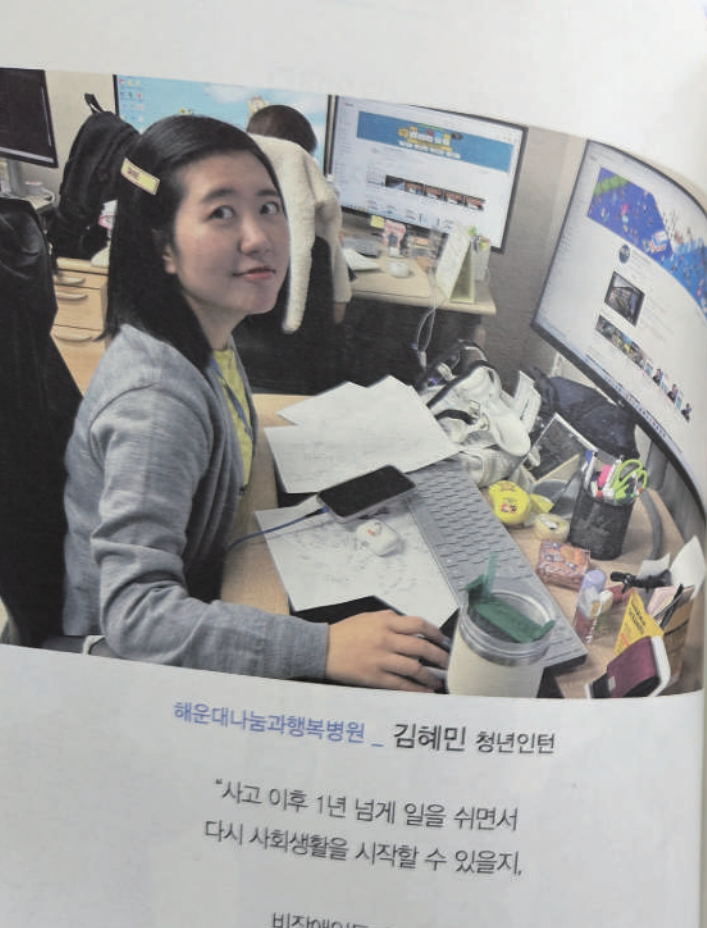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12.08)

한 해 동안 참여자들을 위해 웃음치료, 이미용, 털뭉치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재능나눔을 해주신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웃음치료는 지친 참여자들에게 노래와 웃음으로 힘을 북돋아 주었고 긴 치료의 여정 속에서 쉬고 여유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이미용은 매달 미용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만족감과 자신감을 불어 넣으셨고 털뭉치 프로그램은 코바늘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형과 소품을 만듦으로써 따뜻한 행복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본원에서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주신 자원봉사자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본원과 함께 가치있는 한걸음, 동행에 함께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_ 김혜민 청년인턴

"사고 이후 1년 넘게 일을 쉬면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지,
비장애인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김혜민 청년인턴

Q
간편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방송과 미디어에 관심이 매우 많아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방송콘텐츠를 전공 및 유통하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미래에도 그러한 일을 하고자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찾아보던 중 콘텐츠 디자이너라는 직업과 업무를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하던 일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새로운 경험이자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인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인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18개월 동안의 병원 치료가 끝나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나아가고자 하던 참에, 인턴 사업 공고를 보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청년인턴 및 현장매니저 지원사업 평가회 (12.28)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역)에서 장애청년인턴 및 현장매니저 지원사업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한 사람'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 '사회적 불리'를 경험하는 장애인에게 취업이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일하고자 하는 장애청년을 위해 위 사업을 진행해왔고, 올해 8명의 장애인이 공공기관, 스마트팜, 병원, ICT 분야의 일자리에서 근무하여 함께 달려왔습니다.

우리병원 뉴미디어팀 김혜민 팀원이 그 중 한 명이었고, 12/29일을 끝으로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함께 하는 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요. 김혜민 선생님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 봅니다.





이미용 프로그램 (12.19 / 12.22)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76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영양팀장의 말, 말, 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12.22)

‘언어의 온도’

한권의 책에서 유독 한 줄의 문장이 가슴깊이 남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醫術)이 될 수 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저마다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치유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힘과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좀 더 따뜻한 온도의 언어를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운 날씨가지만

마음만은 그리고 언어만은 추위를 녹여줄 펄펄 끓는 온도이기를 바라며,

올해의 마지막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겨울 간식의 대표 주자인 팔호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기를 담아 살포시 손위에 얹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반을 남기지 않으시면 애정의 눈빛도 함께 얹어 드립니다.

오늘은 애동지의 기나긴 밤이 기다리는 날이면서,

성탄절 연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며,

한해를 열흘 정도 남겨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의 날이든,

오늘 하루가 더없이 따뜻했던 날로 기억되길 바라며,

뜨끈한 온도의 언어로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도 애쓰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사랑. 첫사랑

첫사랑이 아픈 이유는

돌아보며 참고할 연애의 데이터가 없어서인지도 모른다.

여느 때와 다른 없는 출근길이다. 짙은 어둠과 적막한 시야사이로 가로등만이 고개를 내밀뿐이다. 오랜만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볼륨을 높였다. 익숙한 노래가 달팽이관을 기어올라 비집고 들어오더니 뇌의 한 공간에 자리 잡는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이내 추억으로 온도를 높이고 있었다. 20년 넘게 나의 뇌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그림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누구에게나 간직하고 있다는 '옛사랑' 그리고 '첫사랑'

흰 눈 내리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길 찾아가자
광화문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높이 자꾸 올라가네.
_이문세(노래)《옛사랑》

정확히 26년 전이다. 나는 불이 꺼진 건물에 잠입했다. 친구 녀석의 어깨를 빌려 사무실 창문을 넘어가고 있었다. 성인 남자 한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창문을 간신히 넘어갔고, 안쪽으로 들어와 조용히 출입문을 열었을 때 친구 녀석은 어깨를 툭툭 털며 들어왔다. 영화 '나홀로집에' 등장하는 도둑마냥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책꽂이를 찾았다. 목직인 앨범을 꺼내어 여러 개의 사진 중 그녀의 사진 하나를 낚아채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마냥 친구랑 나는 창문이 아닌 출입문을 통해 유유히 빠져나갔다. 건물 밖을 빠져나올 즈음서야 저녁에 먹었던 취기가 올라왔다. 다리엔 힘이 풀렸고, 계단에 주저앉았다. 깊고 밝았던 한여름 밤의 무단침입과 절도행각은 완전범죄로 마무리 되었다. **군입대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지 아마.**

기억의 태업을 1년 더 앞으로 감아본다. 나는 대학교 새내기다. 푹푹한 낭만보다는 몸에 맞지 않은 옷으로 품을 부렸던 1학년 봄. 첫눈에 반한다고 해서 첫사랑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여학생을 만났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스쳐 지나갔다. 아날로그 시대에 디지털 뺨치는 정보력으로 그녀가 물리치료학과 1학년이며, 차(茶) 동아리에 가입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방사선학과였지만 같은 보건 쪽이고, 마침 동방(동아리 방)도 내가 가입한 동아리(서예) 방 맞은편에 있었다. **역지로 연결점을 끼워 맞추고 있었지 아마.**

첫사랑이 아픈 이유는 돌아보며 참고할 연애의 데이터가 없어서인지도 모른다. 아무 정보 없이 맨 마음으로 부딪히는 인생 단 한 번의 연애, 첫사랑. 만개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피어날 줄만 알았던 순진한 처음.
_김이나《보통의 언어들》(위즈덤하우스)

마침 내가 활동하는 동아리에 물리치료학과 여자 동기가 있었다. 우린 신입생활영회를 통해 꽤나 친해진 상태였다. 나는 그녀에게 ‘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 너네 과에 있다.’며 정보를 공유했고, 어렵지 않게 그 여학생의 뽀뽀번호(추억의 뽀뽀세대)를 건네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1:1로 소개팅까지 하게 되었다. 설레임은 딱 거기까지였다. 행복함은 그걸로 충분했던 모양이다. 다음날 소개팅을 했지만 참고할 연애의 데이터가 없던 나왔다. 소개팅은 어색한 공기속에서 그럭저럭 치렀다. ('차라리 소개팅하지 말걸') 당연히 그녀는 골프웨어를 입고 다니는 키 작은 나를 좋아할 리 만무했다. 그렇게 질었던 감정은 서서히 흐려져 갔고, 1년 뒤 입대 전 그녀의 동방에서 사진 한 장 훔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마음 한구석은 미련을 못버렸지 아마.**

다시 26년 전 여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논산훈련소로 끌려갔다.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교육(당시 나는 방사선학과를 나왔는데도 의무병으로 빠지지 못하고 포병이 되었다.)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밤. 모든 게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모든 게 처음인 녀석들과 함께 라서 위안이었던 그날 밤. 대전에서 어딘지 모를 곳으로 이동할 기차 플랫폼에 모였다. 조교라는 녀석이 훈련생을 모아놓고 사진 콘테스트를 즉석에서 제안한다. 여자 친구 사진 중 가장 예쁜 3명에게 간이역에서 팔고 있는 즉석 냄비우동을 사주란다.

입대 전 어렵게 구했던 '사진', 내 지갑 속에는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노란 한복을 입고 차(茶)를 따르고 있는 그녀가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었다. 한복이라는 특별함, 곱디고운 그녀의 얼굴은 비록 엉터리 심사였지만 3명안에 들었고, 나는 동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채 따끈한 냄비우동을 들이킬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소개팅으로 끝났던 첫사랑. 아픈 기억보다 어설픈던 모습이 생생하다. 아무 정보 없이 맨 몸으로, 맨 마음으로 부딪혔던 스무 살의 추억은 그렇게 피어나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_이문세(노래)《옛사랑》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시작한 이문세의 '옛사랑', 이날 음악 사이트를 통해 열 번 정도는 더 들었다. 1절 끝나고 나오는 색소폰 음악은 한겨울 출근길에 무척이나 어울렸다. 물론 출근과 동시에 나의 옛사랑에 대한 기억은 다시 뇌 어느 한 구석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또 몇 년을 잠들 것이다.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두고,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면 되니까.

당신의옛사랑은
당신의첫사랑은
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